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성남 불국사 신도회 봉사단

## 나눌수 있어 행복합니다

10월 12일, 성남 불국사(주지 호관) 공양간이 시끌벅적하다. '효도잔치'를 한다는 소문에 찾아온 지역 어르신 150여명, 손님들은 불국사 보살들이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과 불국사 앞마당에서 펼쳐진 풍물놀이 마당에 흐뭇한 웃음을 짓는다.

이렇게 찾아온 어르신들에게 부지런히 밥과 국을 나르고 안내를 돕는 노란 색 앞치마 부대는 불국사 신도회 봉사단(단장 위여금)이다. 이번이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처음으로 여는 '효도잔치'지만 불국사 신도들은 당황하는 기색이 없다. 불국사의 봉사교육과 여러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해온 '경력'에서 나오는 여유다.

사실 불국사에는 전문 사회복지사까지 종무원으로 일하고 있다. 사찰내 불교대학에서는 8주 교리공부, 8주 봉사교육이 시행되고 있다. 신도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필비탕으로 제대로 된 봉사교육 과정을 거쳐 봉사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사실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봉사활동을 하고 싶어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젊에 다니면서 그 길을 알게 됐으니 좋죠." 봉사단에서 각각 재우와 총무를 맡고 있는 이경화(43)·유정옥(46) 보살이 입을 모아 말하는 것처럼, 불국사에는 '나눔'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절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

불국사 신도들의 활동영역은 사찰 안팎을 넘나든다. 인근의 부처님마을 자광원과 주공재활원·수정복지관·한솔복지관 등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간다.

"자광원에 갔을 때, 앞이 안 보이는 할머니가 더듬더듬 방을 짚어서 사랑을 꺼내주려 하시더라고요. 마음이 아프면서도 우리가 교육 받고 이곳에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봉사도 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일하고 있는 불국사 신도 중 누구를 붙잡고 물어봐도 대답은 '나눔은 삶이 행복하다'는 것이다. 나눔은 삶을 실천하기에 불국사 신도들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다.

글·사진/성남=김강진 기자



10월 12일 불국사 제1회 효도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르신들의 식사를 담당할 불국사 신도회 봉사단원들은 앞으로의 활동이 더 기대되는 보살들이다.

### 효도잔치에 쓸 부식 후원을

이번에 처음으로 효도잔치를 연 불국사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마다 효도잔치를 열어 지역 어르신들과 함께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를 위해서는 어르신들에게 제공할 식사, 간

식 등을 마련해야 한다. 불국사 신도들은 "어려운 어르신들께서 한끼 식사를 하시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을 수 있도록 많이 도와달라"고 부탁했다. (031)755-0329

##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백혈병 민수를 돕기 위해 달마도를 그리고 있는 일허 스님.

"민수 돕기 달마도, 아직 구입 가능한가요?" 본지가 8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백혈병 민수 돕기 달마도 판매'에 불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10월 13일 현재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보시한 100장의 달마도 중 70장이 본지와 일허 스님을 통해 판매된 것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달마도에 대한 문의는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달마도를 판매하고 있는 곳이 늘어났지만 본지에서 판매하고 있는 달마도에 불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는 것에는 이유가

## 민수돕기 달마도 주문 줄이어

### 일허 스님 보시한 100장 중 70장 판매

있다. 스님의 달마도에는 네 살짜리 백혈병 환우 민수를 돕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불자들의 자비심과 함께 '나눔 의식'을 고취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팔에게 달마도를 선물한 차정순(65)씨는 "달마도를 구입하는 것도 좋지만 판매금액 모두 아이 치료비로 쓰여 진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와 닿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생각은 달마도를 구입하는 대부분의 불자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스님의 보시에 감동했다는 구입자들도 적지 않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한 독자는 "스님께서 큰 뜻을 내어주셔서 보기 좋다"며 "배틀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스님은 혼신이 깃든 그림을 선물 내 놓으시는 것을 보며 다시 한 번 내 삶을 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백혈병으로 부산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민수(4)는 10월 4일 임시 퇴원한 상태다. 5차 약물치료 중인 민수는 계속 자라나고 있던 암세포와 파괴된 체 복귀되지 않는 헬스관 때문에 힘든 투병생활을

벌이고 있다. 현재 암세포는 어느 정도 잡힌 상황이지만 헬스관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민수는 18일, 다시 병원을 찾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민수 아버지 김형찬씨는 "많은 분들의 관심 덕분에 민수가 약물치료를 잘 견디고 있다"면서 "그림을 구입해주신 분들의 마음들이 하늘에 닿아 아이가 건강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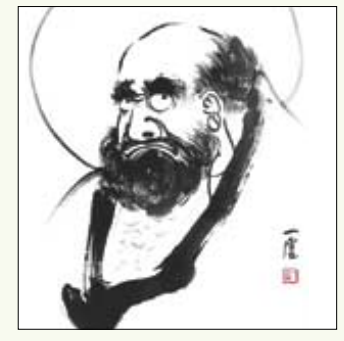
김강진 기자

**민수돕기 달마도 구입해 주신 분들**  
박현 기사야 이순덕 박순일 구속경 양각을 정영희 이재도 서경숙 송남이 김진배 김광태 한성경 박훈식 김성기 윤영숙 이보경 송림사 청암사 덕암사(용각스님) 방시열 최성식 송정석 박종범 심원식 한양현 서선화 김선자 최선호 이승호 최혜원 전재구 한만현 서원준 이재은 김기태 오택규 최태숙 변용태 용각스님 윤영숙 김주환 이경철 김대영 황근구 류연영 김숙자 박경아 김영준 우진궁 김귀남 김정순 황용선 정진갑 김양숙 권갑연 송진욱 이준엽 김원우 여수령 오택규 박정선 이봉덕 송정선 김용사 차정순 이영만 김홍사(도각스님)  
(10월 13일 현재 입금 완료된 분, 주문순서 기준)  
\* 주문자와 입금자가 달라 입금 확인이 안 된 분도 있습니다. 본사로 전화주시면 이후 정산 시에 기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일허 스님 달마도 구입안내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에 일허 스님(밀양 영천암 주지)이 달마도 100장을 보시했습니다. 달마도(사진)는 35×45(cm)규격이며, 작품 가격은 장당 5만원입니다. 판매 수익금은 전액 민수의 치료비로 사용됩니다.

달마도 구입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02)2004-8239  
영천암 (055)356-2040, 일허 스님 011-867-4747  
계좌번호: 006001-04-095472, 국민은행 예금주: 김강진 (현대불교)



### 완치되는 그날까지 민수돕기 모금운동 계속됩니다

현대불교 나눔의 손잡기에서는 필수성 백혈병을 앓고 있는 민수돕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민수가 완치되는 그날까지 각 사찰 단체 개인 불자들의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문의: 나눔의 손잡기 (02)2004-8234  
도움주실 곳: 927-12-838466(농협 예금주 김형찬), 016-547-8672 (homepy.buddhanipia.com/homepy/helppmsu)

## 네팔 불교 부흥에 힘 모아주세요

'사키아족(석가족)' 불교를 살리기 위한 현대불교신문 부다피아의 '폼뿌리운동'이 전개된다.

네팔 '부처님의 땅 불교인센터(Buddha Bhumi Buddhist Center, 이하 불교인센터)' 공동대표인 사다타사(Saddhatissa) 스님과 고리타(Kolita) 스님은 10월 5일 한국을 방문, 네팔 불교 부흥을 위한 한국불자들의 도움을 요청했다.

정통 사키아족 출신으로 네팔 카투만두 지역에서 활동 중인 두 스님의 한국방문은 1995년 이어 두 번째, 이들은 가난한 사키아족 네팔 불자들의 어려운 현실을 알리기 위해 두 번째 한국 방문길에 나섰다.

불교인센터는 4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규모는 작지만 지역에서 이름난 불교 기관이다. 어린이 청소년들을 위한 의료봉사, 산간지역 불자들을 위한 문명복지사업,



사진 왼쪽부터 본사 부다피아 형월 스님, 사다타스님, 고리타스님  
초등학교 학습 지원 등 사회봉사와 찬불가 보급, 불교잡지 발행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02)2004-8281 조용수 기자

###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 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벌이는 봉사 현장을 소개합니다.

도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하는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금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우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

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무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벌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시요.



# 건강을 원하거든 행복을 원하거든 천문을 열어라

기적의 천의선도를 만천하에 공개, 전수시켜 드립니다.

"천문을 열어라" 책값: 20,000원

육경권을 통한 천의선도 태증선사

천의선도를 전수시켜드리는 과정을 천문을 열어드린다 합니다. 천의선도는 미구에 원인 모를 질병이 인명을 휩쓸고 갈데인데 사람의 능력으로는 대책이 없으니 천의선도를 전수시켜 빙의된 조상신을 연화장 세계로 보내고 영능력을 길러 인명을 구원해서 후천 선경을 이루라는 천명을 받고 14년전 창도되었습니다.

※ 천문이 열리면 하늘에 서기(생명의 에너지)가 정수리를 통하여 몸속으로 들어오면서 손과 손 사이에 자석의 밀고 당기는 것 같은 자장을 느껴 자연의 신비에 감탄하는 순간 빙의된 조상신은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고 태증선사님의 사면령이 내려지면 연화장 세계로 떠나게 됩니다. 그 순간 30년 두통도 즉석에서 시원해지며 몸이 거뜨해지고 하시는 일이 서서히 잘 풀리며 집안이 편안해졌다고 이구동성입니다. 열심히 수련하면 당신손이 약손이 되어 타인에 천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홍보기간 중에는 평생회비 50만원을 20만원에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천의선도 13주년 기념행사는 사회봉사활동**  
신다림으로 고통받는 분, 만성두통, 이명증, 목디스크, 견비통, 요통, 위이상으로 소화불량자, 우울증, 전립선 이상자, 요실금, 생리통으로 고통받는 분에게는 생명의 에너지(하늘에 서기)로 쓸어드리면 신화같은 기적이 일어난다는 분이 10명중 8.9명입니다. 체험해 보십시오. **요실금이 없어진 여자는 천하제일의 몸으로 변신되어 남편 바람날 염려없고 전립선이 좋아진 남자는 정력은 물론 조루증까지 없어지니 이러한 신비가 어디 또 있겠습니까?**

※ 내 나이 75세에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전국을 순회하면서 생로병사와 사후 영혼들의 실상을 강의하고 다니는 것은 첫째 지면을 통해 발표한 외래종교교육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한 사례를 밝히며 한 민족의 주체적식을 회복시켜 세계평화에 기여하자는데 목적이요 둘째 무엇에 쫓겨서 제 갈길을 못하고 방황하는 당신에게 조상신을 천도시켜준다고 유혹하는 양의 탈을 쓴 놈들에게 속지 마시고 빙의된 조상신은 당신 몸에 하늘에 서기가 충만할때 생명의 에너지를 보급받아야 떠나는 것이니 당신 외에는 누구도 보낼 수 없다는 걸 알려드리고 셋째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다가 잠든 듯이 고층없이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천상비결을 전해드리는 것이 나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10월 10일부터 2주간은 서울 수련원에서 천문을 열어드립니다

■ 위치: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5동 483-39 삼흥빌딩 403호 (답십리 고미술상가 2동 맞은편에 있습니다. ☎ 전화: 02)2216-6278 / 011-9803-4600

매월 마지막주에는 부산에 있습니다

■ 위치: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 베르빌 오피스텔 1821호 서면 롯데호텔 뒤편 800미터지점 22층 건물에 24시 사우나 찜질방 간판 보임. ☎ 전화: 051)803-5953, 011-9803-4600

■ 천의선도 본원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소룡리 489-1 (토요일, 일요일은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습니다) ☎ 041)741-4600, 741-7600, 011-9803-4600 천의선도 태증선사 김영생 올림